광주 대형마트 추가 진출 곳곳 마찰

북구청, 개점 불허했다 소송서 패소… 상인단체 항소 요구

남구선 롯데쇼핑 규제피해 가맹점 형태로 SSM 개점 채비

광주에 대형마트 개점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자치구의 건축불허가 처분에 맞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한데 이어 롯데쇼핑이 사업조정 대상이 안되는 가맹점 형태의 SSM을 내세워 추가 진출을 시도, 지역 상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17일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에 따르면 최근 광주시 북구 삼각동에 대형마트 개점을 추진하고 있는 S법인이 북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S법인은 지난 3월 북구청이 삼각동 고려고 인근 지하 3층, 지상 4층, 건축면적 2만4661㎡ 규모의 대형마트 건축허가 불허 처분을 내리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북구청은 변호사와 항소 여부를 논의 중이다.

장귀환 삼각동 대형마트 입점저지대책위원장은 "북구청을 방문해 항소할 것과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광주시 남구 노대동 송하마을 휴먼시아 5단지 인근에는 991.7㎡ 규모의 롯데쇼핑 가맹점 SSM이 오는 24일께 개점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가맹점 SSM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기존의 SSM이 제재를 받자 직영이 아닌 개인 사업주를 모집해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사업조정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곳이 문을 열면 롯데쇼핑이 전국에서 네번째로 문을 여는 가맹점 SSM이 된다.

광주슈퍼마켓협동조합을 비롯해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는 21일 롯데쇼핑을 상대로 사업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용재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롯데쇼핑이 법망을 피해 기존 동네슈퍼를 가맹점 형식으로 인수해 롯데슈퍼 개점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편법"이라며 "가맹점을 포함한 유통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 통과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4월 6일 삼성테스코가 풍암동과 치평동에 문을 열기로 했던 SSM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광주시 슈퍼마켓협동조합과 함께 '광주시 SSM 사업조정신청협의회'를 통해 협상을 진행중이다. /이은미기자 emlee@

光銀도 붉은 응원 남아공 월드컵 대한민국-아르헨티나 전이 열린 17일 광주은행 본점 영업부 직원들이 붉은색 유니폼을 입고 한국의 선전을 기원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전남·북 근로빈곤층

95000가구

광주와 전남·북지역에서 9만5000가구가 근로빈곤층인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근로빈곤층(부부합산 연간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가구)을 대상으로 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마감한 결과 광주와 전남·북 지역에서 모두 9만5000가구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광주지방국세청 신청인원은 중부청(21만1000가구), 부산청(11만9000가구)에 이어 3번째로 많았다. 전국 6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광주청 신청인원은 전국 신청가구(67만5000가구)의 14.4%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신청금액은 77만원 수준이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오는 8월말까지 신청가구들에 대한 수급요건 개별심사를 벌인 뒤 대상자를 확정, 9월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급 지급규정을 토대로 할 때 소득구간별 올해 가구당 평균 신청액은 근로소득 800만원 미만 가구 58만원, 800만원 이상~1200만원 미만인 가구 120만원, 1200만원 이상~1천700만원 미만 가구 65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올해 신청가구를 분석한 결과 소득별로는 근로소득 800만원 미만이 49%(33만1000가구)로 가장 많았고 800만원 이상~1200만원 미만 28.6%(19만3000가구), 1200만원 이상~1700만원 미만 22.4%(15만1000가구) 등이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국세청 연말정산업무 최우수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임성균)이 '2009년 귀속 연말정산업무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지방청으로 선정됐다.

광주지방국세청은 17일 "연말정산 관련 '전화상담 서비스 강화''찾아가는 연말정산 설명회' 등 창의적인 업무수행으로 전국 6개 지방국세청 중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기부금 부당공제 방지 등 납세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노력도 높게 평가받았다.

임성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라며 "광주청 관내 100만 근로자들에게 납세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다양한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하이트 맥주, 광주서 스크래치 카드 이벤트

하이트맥주(대표이사 이장규)는 18일 밤 11시 광주 동구 충장로 클럽 볼룸에서 'Q.O.B(Queen of Beer) 스크래치 카드 이벤트'를 진행한다. 브라운아이드걸스·아이비·티아라 등 인기가수들도 무대에 오른다.

이 행사는 저칼로리 식이섬유 함유 맥주 '에스(S)'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Q.O.B 스크래치 카드 이벤트'는 에스(S)맥주를 주문하는 소비자에게 'Q.O.B 스크래치 카드'를 증정하는 이벤트로 1등 1명에게 뉴욕여행티켓을 제공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태극전사들 세금 얼마나 낼까

박지성-28억

이동국-2억3000만원

이영표-0원

박주영-0원

〈이동국〉 〈박주영〉 〈이영표〉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의 특급스타들은 세금을 얼마나 내고 있을까.

17일 기획재정부 블로그에 따르면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은 160만파운드(28억7000만원), 이동국(전북 현대)은 2억300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영표(알 힐랄)와 박주영(AS 모나코)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축구스타의 세금은 소득금액 산정 시 연봉 외 수입은 제외했으며 개인별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혜택도 제외해 계산한 액수다.

영국 프리미어리 그에서 활약하는 박지성의 연봉은 320만파운드(57억3000만원) 정도다.

영국은 최근 재정 적자 문제가 심각해지자 지난 4월부터 연봉 15만파운드(2억7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 50%의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지성의 경우 160만파운드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영표는 세금이 없기로 유명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활동하는 덕분에 연봉 18억원을 그대로 받는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소득세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프랑스리그에서 뛰는 박주영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2008년 모나코에 입단한 박주영은 지난해 말 연봉 인상을 통해 80만(11억9000만원)~90만유로(13억4000만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는 최고 소득세율이 40%이고 부유세까지 존재하지만, 박주영의 경우 세금을 받지 않는 모나코 공국에 급여 계좌를 개설했기 때문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국내 리그에서 활약 중인 이동국은 7억원 정도의 연봉을 보장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소득세율 35%를 적용하면 2억3000만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처럼 해외파 축구스타들은 외국에서 세금을 내지만 국내에서도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다. 국내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 원천소득 모두에 납세 의무가 있고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만 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박지성의 경우 광고출연료 등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연합뉴스